



강구열 (주)ESP/대표이사

**며** 칠 전에 끝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최병렬 후보가 선출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정치 판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더한 것이 선거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대표선거가 끝난 후에 그래도 좀 조용한 것을 보면 한나라당도 아니 우리 정치문화도 좀 성숙했나 봅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적임자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각각 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에 회자된 요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짱을 떠는 데 가장 강한 후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말짱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있는 말인가? 내가 사용하는 사전에는 없는데, 요사이 모 방송국의 연속극에서 “말짱을 떠다“는 대사가 자주 등장하였다 거기에서는 적수끼리 아니면 경쟁자끼리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참여의 정부에서 정권의 초기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혼란스러운 건지? 하여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

---

약력 : • KCC정보통신 • 동아건설산업(주) • 삼립식품공업(주) • 현재 (주)ESP 대표이사

다. 사람은 누구나 경쟁자가 있으면 없는 것 보다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 말짱 상대가 반대편이든 아니면 바로 아래 사람이든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래 사람은 우리의 법률 구조상 대통령과 경쟁이나 견제가 불가능하고 반대편은 다름 아닌 야당의 대표일 것이다.

요사이 2만불 국민소득 달성을 위한 비전의 제시가 자주 신문에 기사화 되고있다. 어쨌든 좋은 일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삼성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앞장서겠다며 “제2의 신경영“을 선언했다. 삼성은 여기에서 세계 일등제품을 현재 19개에서 50개(2.6배)로 늘이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신경영 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매출액 3.4배 이익 28배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경영실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다. 사실 10년 전 삼성이 신경영 선언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전부 바꿔야한다고 외쳤다. 이때 74제, 즉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의 시행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희 회장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보자. “내 자신이 수십 번 변해 왔다. 하나씩 하나씩 노력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요는 꾸준하게 변해야 한다. 끝없이 변해야 한다. 매일 매일 조금씩 변해야 한다. 뒤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 자기 자신과 약속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맹세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변해야 한다. 절대 남이 바꿔 주지 않는다.”(월간조선 7월호 436쪽) 이런 이회장도 사람이니 만큼 긴장이 풀어지거나 나태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말짱을 떨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분이 누구일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게 말짱을 떠는 재벌회장이 있다면 10년 뒤에는 적어도 세계 일등 제품이 100개는 넘을 것인데? 한때는 삼성 현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이걸 선거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추대 할 수도 없으니 안타까운 노릇이구나. 어쨌든 이회장의 말짱 상대가 빨리 나타나기를 비는 수밖에 없다. 만약 국내에서 없다면 지구상의 어딘가에서 꼭 나타날 거이고 그 말짱 상대를 반드시 이겨 삼성의 제2의 신경영 목표가 달성되고 그때는 국민소득도 2만불을 넘게 될 것이다.